

삼성 “아슬아슬”에 LG “거뜰”

휴대폰, LG 판매목표 1억대 근접 ... 삼성전자는 2억대 못미쳐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구한 국내 휴대폰 제조기업들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반도체를 제치고 IT제품 가운데 수출 1위에 등극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간 휴대전화 판매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억대와 1억대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07년에 삼성전자는 1억6100만대, LG전자는 805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2008년 1-9월 삼성전자는 총 1억528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으며 4/4분기에 5620만대 이상 판매하면 국내 최초로 2억대의 고지를 밟게 된다.

그러나 1/4분기(4630만대)와 2/4분기(4570만대)에는 다소 주춤하다 3/4분기(5180만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나 4/4분기부터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큰 폭의 판매 신장을 이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억대 목표를 간신히 턱걸이했거나, 고지를 목전에 두고 아쉽게 미끄러지는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2008년 3/4분기까지 751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연간 1억대 고지를 비교적 손쉽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경기불황이 불어 닥친 4/4분기에도 미국 등 북미시장 선전에 힘입어 판매량이 3/4분기 판매량을 넘어선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의 잠재된 욕구까지 충족시킨다는 <고객 인사이트>의 저력이 경기불황 속에서 더욱 빛났다”며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1억대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8>